

7월20일(월)/누가복음8:49-56

**제목: 사람의 위로와 예수님의 위로**

회당장의 외동딸이 예수께서 도착하기 전에 이미 죽어 버렸다.(49절) 사람들은 이미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 했고(49절) 대부분 사람들은 통곡하였다.(52절) 이 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52절) 사람들은 비웃었다.(53절)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아이를 단숨에 일으켜 세우셨다.(54절) 그가 “울지 말라” 했던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약속이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위로이다. 우리도 장례식에서 슬픔당한 유족들에게 “울지 말라” 위로한다. 이 위로 안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나? “그렇게 운다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오니까 마음을 정리하세요. 이제는 산자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의 의미가 있다. 사람은 체념하고 위로한다. 하지만 예수님의 위로는 더 이상 위로 받을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 내포된 위로이다. 그는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신다. “내가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 더 이상 자살할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 더 이상 숨어지낼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

7월21일(화)/누가복음9:1-6

**제목: 목회자와 성도 간의 예의**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몇 가지 준칙을 주셨다. 지팡이, 주머니, 양식, 돈, 두벌 옷 등과 같은 것을 소유하지 말라는 것과(3절) 어느 집에 머물든지 가능한 거기서 오래 머물라는 것과(4절) 자신들을 영접치 않는 가정에게서 과감하게 떠나라는 것이었다.(5절)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전도자는 왜 한 집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이다. 이 집은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한 처소를 가리킨다. 예수님 당시에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것은 성도들의 의무였다. 그런데 전도자에게 있어서도 하나의 철칙이 있었다. 그것은 가능한 그 집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전도자들이 거처를 이곳 저곳 옮겨 다님으로 거처를 제공했던 집 주인으로 하여금 자기 집을 전도자들이 불편해 했다는 오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은 일반 성도와 전도자 간에 있어서 상호 존중과 예의와 배려를 강조하셨다.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이 섬김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7월22일(수)/누가복음9:7-9

**제목: 두 발 뺀고 잡시다.**

예수님의 활약상을 보고 헤롯은 매우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인 세례요한이 예수로 환생했다는 소문 때문이었다.(7절)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9절) 헤롯은 자기 이복 동생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와 불륜관계를 맺어 본처는 버리고 그녀와 결혼하였다. 헤롯은 이 일을 비난한 세례요한을 참수형에 처했다. 이것이 그의 마음에 늘 걸렸던 것일까? 당시 사람들 가운데 세례요한과 예수의 사역의 유사성 때문에 예수님을 세례요한의 환생이라고 보는 자들이 있었다.(7절) 이러한 소문이 계속 확산되자 헤롯은 당황하였다. ‘심히 당황하여’ 라는 말은 불안 상태가 완료되지 못하고 계속 진행되는 것을 가리킨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잠언28:1)고 했는데 헤롯이 바로 그 꼴이었다. 숨길 것이 많은 자는 항상 불안하다. 그리고 그 불안은 점점 커지다가 정신적인 장애까지 입게 된다. 노이로제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에게 혹시 뭔가 남에게 숨길만 한 것이 있는가? 있다면 오늘부터 이 자리에서 과감히 손을 씻어야 한다. 그러면 오늘 밤부터 두 발 뺀고 잡수 있다.

7월23일(목)/누가복음9:10-17

**제목: 기적은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 날은 저물어가고 있었고 무리들은 시장하였다. 그러나 거기는 음식을 사올 수 없는 빈들이었다.(12절) 이 때 예수님은 무리들 속에서 구해 온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큰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13-17절) 먼저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16절) 여기서 ‘축사’는 유대인들의 식전 기도를 말하는데 이는 당시 유대인 가장이면 누구나 하는 일반적인 식사기도였다. 따라서 그의 축사는 기적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었고 식사 감사 기도였다. 예수님은 이 감사 기도를 끝내시고 떡을 떼어 주셨다.(16절) 여기서 ‘떼어’라는 동사는 일회적인 행동을 가리키고 ‘주어’라는 동사는 계속 반복된 행위를 가리킨다. 예수님께서 떡을 한 조각을 떼어 내었다. 그런데 그 떡에서 계속 조각들이 생성되었다는 말이다.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먹은 사람들이 남자만 오천명이었다. 기적을 이룬 기도는 감사기도였다는 것이다. 달라고 보려는 감사하고 찬미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준다.

7월24일(금)/누가복음9:18-27

### 제목: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 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으시더니(18절) 돌연히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개인적으로 나를 누구라 하느냐?” (20절) 질문하였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하여 말한 것을 알고 있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엘리야로 혹은 세례요한으로 여기던 말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19절) 단지 그는 제자들 각각이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알고 싶으셨다. 그는 제자들이 자기에 관하여 객관적인 시험을 치른다면 합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개인적으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으셨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물으신다.

“너희가 서적을 통해서 나를 독파했을지라도 그것 가지는 충분하지 않다. 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 말고 너 개인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질문하신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느낌, 생각, 신앙고백을 중시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항상 개인적인 발견해야 한다. 기독교는 어떤 신조를 받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누구로 받아 드리느냐에 달려있다.



##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